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9.(월) 전달식 시작(11:00) 이후 | 배포 2026. 11. 6.(금)

“현장학습과 소풍을 보장해 주세요” 아동총회 대표, 국회에 정책 결의문 전달

- 13명 아동대표, 국회 방문해 실질적인 입법 활동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촉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9일(월) 대한민국 아동총회 아동대표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지난 8월에 개최된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채택된 정책 결의문을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학업 부담 완화와 쉴 권리 보장 등 아동들이 제안한 내용을 실제 법률 제정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아동총회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개최, 전국 아동대표(10~17세)가 아동 관련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론하고 개선안을 제안

이날 아동대표 13명은 김희정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만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결의문에 담긴 주요 제안과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법률 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나아가, 아동들의 정책 결의문은 입법부인 국회 전달에 이어, 정부에도 공식 보고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분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정부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구성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결의문 내용을 보고**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정책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오준)와 함께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

의실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학업부담과 아동권리(표어: Less 학업부담, More 아동건강)’**를 주제**로 「2026년도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아동대표 110여 명은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체험학습 확대 및 쉴 권리 보장, 학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 체계 강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아동총회를 운영해 온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결의문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아동총회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약 40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결의문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각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 해 아동총회 개회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정책 결의문은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다"라며,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의 입법활동과 정부의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은 "학업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을 지키자는 **아동대표들의 제안이 국회와 정부의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결의문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아동대표들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오준 회장은 “아동이 직접 논의하고 제안한 결의문은 아동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목소리다”라며, “이번 전달식이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23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찬수 (044-202-3410)
		담당자	사무관	황신자 (044-202-3415)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정책본부	책임자	부 장	한명애 (02-6454-8561)
		담당자	주 임	강보미 (02-6454-8564)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책임자	사무총장	이혜진 (02-831-1930)
		담당자	주 임	강민경 (02-831-193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제23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

1.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는 현장 체험학습을 1년에 최소 1회, '소풍'은 2회를 보장해 주세요.

2.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쉬는 시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쉬는 시간을 변경해 주세요.

3.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음료는 만 16세 이상에게만 판매해 주세요.

4. 필기시험이 많은 주에는 1주일 동안 골고루 나누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5. 모든 지역에 초등 아동들이 일정 기간 직업인에게 직접 진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주세요.

6. 보건복지부는 아동 전용 건강생활 실천 포인트 앱을 만들어 운영해 주세요.

7. 모든 아동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3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8. 정부는 초등학교 학생이 직접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 자율 동아리 제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세요.

9. 정부는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 지수를 개발하여 지수가 낮은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 주세요.

10. 교육부는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학생을 위한 하교 후 Wee클래스 대면 운영을 해주세요.

11. 교육부는 학생 상담 채널 라임(LIME)을 개선하고 홍보해 주세요.

12. 「진로와 직업」 교과의 교육 과정 취지 실현을 위한 세부 활동 평가 계획 수립 및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13. 국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수립·변경할 때 충분한 예고와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와 통합 안내 체계를 마련해 주세요.

14. 교육부에서 중학생을 위한 맞춤형 소그룹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주세요.